

문서번호	의회사무국-1350
등록일자	2017. 3. 20
결재일자	2017. 3. 20
공개여부	대국민공개

주무관	의사팀장	의회사무국장	부의장	의장
				3.20결재
협조				

2017년 북구의회 공무 국외 연수보고서 (러 시 아)

■ 국외연수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 기 간 : 2017. 2. 13. ~ 2. 21. (7박9일)
- 장 소 : 러시아
- 참 석 : 이동욱 부의장 외 7명

■ 주요 연수내용

- 항일운동 역사현장 방문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 의회 및 공공기관 방문을 통한 운영체제 학습 및 러시아와의 다양한 분야 교류 활성화 도모
- 러시아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및 발전분야 견학, 벤치마킹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www.bukgucouncil.daegu.kr)

공무 국외 연수 개요

- ☐ 연 수 국 : 러 시 아
- ☐ 연수목적 : 러시아 지역에 분포된 일제강점기 독립현장을 방문 함으로서 역사의식에 대한 올바른 사관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러시아의 선진 문화와 발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북구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연수기간 : 2017. 2. 13. ~ 2. 21. [7박9일]
- ☐ 보고서 작성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직책)	성 명	서 명
부 의 장	이 동 욱	
의회운영위원장	김 준 호	
행정자치위원장	구 본 탁	
사회복지위원장	고 인 경	
행정자치위원회	신 경 희	
사회복지위원회	이 헌 태	
사회복지위원회	윤 은 경	
사회복지위원회	이 영 재	

목 차

I . 연수개요	3
1. 연수배경 및 목적	3
2. 연수기간 및 일정	3
3. 연수인원	5
4. 연수 전 워크숍 및 간담회	5
II . 연수국[러시아] 현황	7
III . 주요 연수도시 현황	19
1. 블라디보스토크	19
2. 하바롭스크	20
3. 이르쿠츠크	20
3. 모스크바	21
3. 상트페테르부르크	22
IV . 방문지별 주요견학 현황	24
1. 독수리 전망대	24
2. 시베리아(대륙) 횡단열차	26
3. 항일 독립 유적지	27
4. 발해 성터 유적지	31
5. 하바롭스크 중앙재래시장	33
6. 이르쿠츠크 주청사	35
7. 모스크바 지하철	37
8. 바이칼 호수	39
9. 성바실리 성당	40
10. 크레믈린 궁	41
11. 예카테리나 궁전과 호박방	41
12. 에르미타쥬 박물관(겨울궁전)	42
13. 붉은광장	43
V . 연수 소감	44

2017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I 연수개요

1. 연수배경 및 목적

- 러시아의 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운영 실태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지식 함양 및 의정활동에의 반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역사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함양 및 애국심 고취
-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조화를 이룬 도시조성지역 방문을 통해 관광자원 및 자원관리현황 견학
- 연수국가의 행정·도시경관·교통·환경·관광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틈틈이 습득 및 벤치마킹하여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연수기간 및 일정

- 연수기간 : 2017. 2. 13.(월) ~ 2. 21.(화) (7박9일)
- 연수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17. 2.13. (월)	대 구 인 천	블 라 디 보스토크	-	국외연수 관련 방문지 및 방문기관, 현장견학지 현황자료 수집	국외연수 자료수집 출국
2017. 2.14. (화)	블 라 디 보스토크	하 바 롭스크	안중근 의사 기념비 외 항일운동 역사지	항일운동 역사현장 방문	현장견학
2017. 2.15. (수)	하 바 롭스크	이 르 쿠츠크	레닌광장 재래시장 무명용사비	문화유적지 관리사례 견학	비교견학
2017. 2.16. (목)	이 르 쿠츠크	-	이르쿠츠크 주 청 사 카잔스키 대 성 당 생태학박물관	주 청사 운영실태 및 도시경관조성 관련 비교견학	기관방문
2017. 2.17. (금)	이 르 쿠츠크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붉은광장 성바실리성당	문화시설운영 비교견학 및 도시경관조성 관련 현장견학	비교견학
2017. 2.18. (토)	모스크바	상트페테 르부르크	모스크바대학 전승기념관 센 토 스 물류파크	현지 교육기관 방문 및 한국기업 물류단지 방문	현장방문
2017. 2.19. (일)	상트페테 르부르크	-	에르미타주 박 물 관 시의회 상트페테르 부르크 대학	현지 의회 및 교육기관 방문	기관방문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17. 2.20. (월)	상트페테 크부르크	모스크바	구해군성본부 성이삭 성당 카잔성당	문화유적지 및 문화시설 관리현황 견학	비교견학
2017. 2.21. (화)	모스크바	인천 대구	-	-	귀국

3. 연수인원 : 10명(의원 8명, 공무원 2명)

소속(직책)	성 명	비 고
부 의 장	이 동 욱	
의회운영위원장	김 준 호	
행정자치위원장	구 본 탁	
사회복지위원장	고 인 경	
행정자치위원회	신 경 희	
사회복지위원회	이 헌 태	
사회복지위원회	윤 은 경	
사회복지위원회	이 영 재	
의회사무국	박 천 수	
의회사무국	이 상 호	

4. 연수 전 워크숍 및 간담회

■ 1차 워크숍

- 일 시 : 2017. 2. 9(금) 11:00
- 장 소 : 소회의실
- 내 용
 -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유적지 방문(안중근, 최재형, 이상설 등) 관련 자료수집 및 토론
 - 러시아 현지에서 의회 및 공공기관, 도시경관, 사적지관리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토론
 - 러시아의 천연자원관리 실태 및 문화관광자원 자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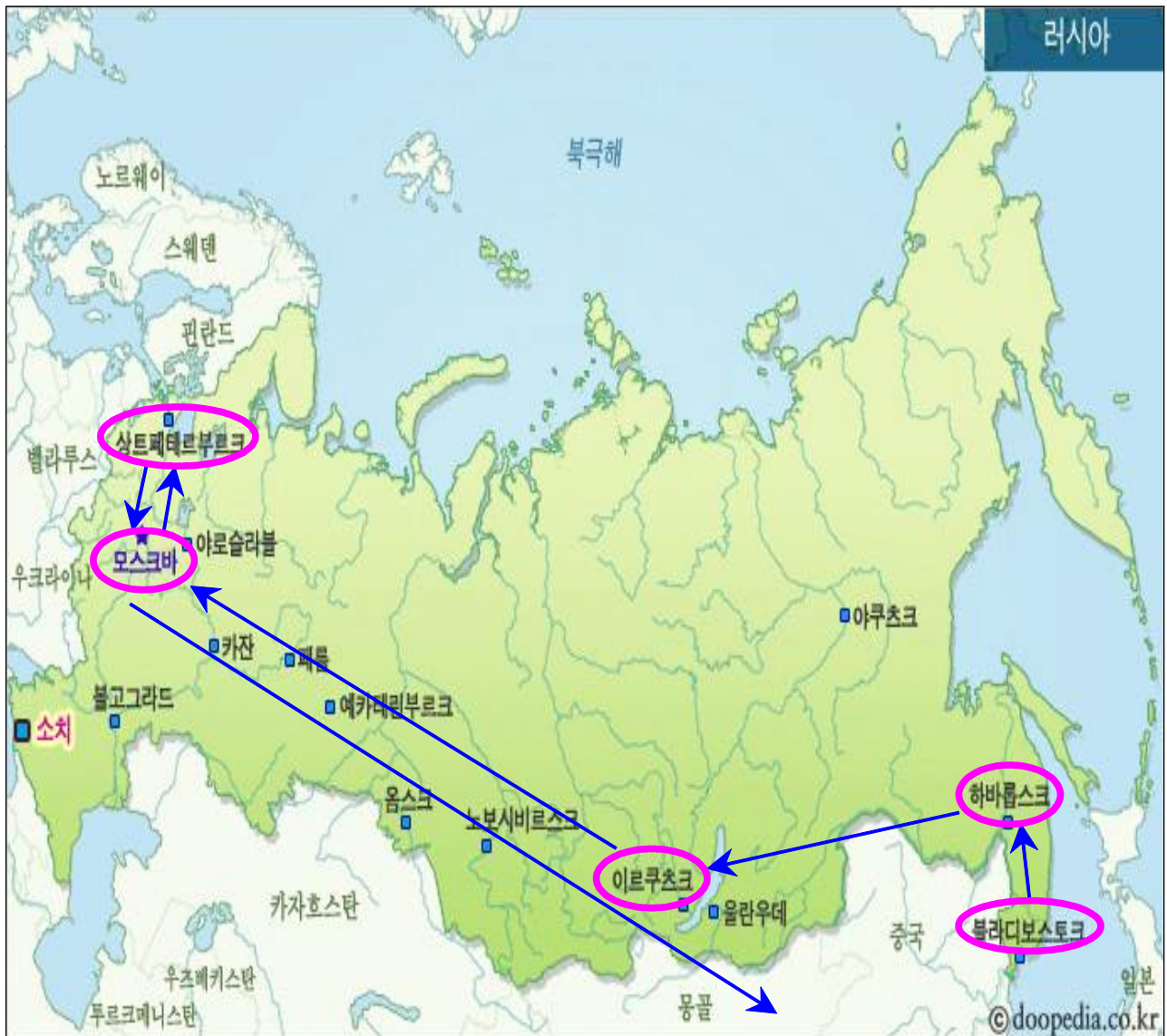
■ 2차 워크숍

- 일 시 : 2017. 2. 16(목) 14:00
- 장 소 : 소회의실
- 내 용
 - 중요 연수자료 숙지 및 국외연수 유의사항 등 최종 점검
 - 연수 일정 및 숙박, 준비물 등 사전 점검



II

연수국(러시아) 현황



※ 러시아 연수 이동경로

대구 → 인천 → 블라디보스토크 → 우수리스크 → 하바롭스크 →
 이르쿠츠크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모스크바 →
 인천 → 대구도착

1. 일반현황

◆ 국 명 :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 수 도 : 모스크바(Moscow)

◆ 인 구 : 140,200,000명(2006년 기준)

◆ 면 적 : 17,075,400km²(한반도의 약 78배)

◆ 위 치 : 동부 유럽 및 아시아 중북부,
동경 100° 00", 북위 60° 00"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언 어 : 러시아어, 문맹률 0.6%

◆ 종 교 : 러시아정교(이외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 등)

◆ 기 후 : 대륙성 기후(모스크바 부근은 겨울 평균기온
영하10℃이고, 여름 평균기온 영상 16℃)

◆ 시 차 : 한국과 - 6시간 차이

◆ 민족구성 : 러시아인(80%),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2%) 및 140여개 소수민족(8.41%)

※ 고려인 20만명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 원유, 나프타, 무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괴 등

◆ 대통령(제6대) : 블라디미르 푸틴 (2012.05. ~ 현재)

◆ 총 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2012.05. ~ 현재)

2. 러시아 연방 구성

- 러시아는 총 83개의 연방 구성주체들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임.
연방 구성주체는 공화국(21개), 자치주(1개), 자치구(4개), 지방(9개), 주(46개), 특별시(2개) 등 6개의 단위로 나뉘짐.

2개 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21개 공화국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코미 공화국, 카렐리아 공화국 부랴티아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체첸 공화국 등
46개 주	모스크바 주, 레닌그라드 주, 칼루가 주, 볼고그라드 주 툴라 주, 라잔 주, 트베리 주, 스몰렌스크 주 등
9개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연해주 지방, 캄차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등
4개 자치구	추코트카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네네츠 자치 구, 한타-만시 자치구
1개 자치주	유대인 자치주

- 2004년부터 중앙집권화를 위해 러시아 대통령이 각 83개 지방 정부의 수반을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1년 12월 하원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의 영향으로 2012. 7. 1일부터 83개 연방주체의 대표자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는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직접선거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영토, 내수 및 영해, 그리고 그 위의 영공을 포

함’ 하고, 제2항은 ‘러시아 연방이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구역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지니며 그 관할권을 행사’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3항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간의 경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71조와 제72조는 또한 연방과 구성주체 간에 있어 관할 업무내용을 엄격히 분리해 놓고 있음.

●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

-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의 제정과 개정, 이들의 준수에 대한 통제
- 러시아연방의 구조 및 영토
- 사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규제와 보호, 러시아에서의 국적, 소수민족의 권리 규제와 보호
-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연방체계, 그 조직 및 활동 절차의 제정, 연방국가 권력기관의 형성
- 연방 국유재산 및 관리
-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 발전 부문에 있어서 연방정책 원칙의 제정 및 연방 계획
-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의 제정, 금융, 통화, 신용, 관세의 규제, 통화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하는 연방의 경제업무
- 연방예산, 연방세 및 징수료, 지역발전 연방기금
- 연방 에너지체계, 원자력에너지, 방사능물질, 연방운수, 교통, 통신·정보망, 우주활동
-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국제관계, 러시아연방 조약,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 방위 및 안전보장, 국방산업, 무기, 탄약, 군사기술 및 기타 군사물자의 구입 및 판매 절차의 결정, 방사능 물질, 마약의 생산 및 그 사용절차
- 러시아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구역 및 대륙붕의 지위결정과 보호
- 재판소 구성, 검찰기관, 형사, 형사소송, 형사행정의 법제, 사면 및 특사, 민사, 민사소송, 중재소소의 법제, 지적 소유권의 법적 규제
- 연방 저축법
- 기상업무, 표준 규격, 도량형, 미터법, 표준시 계산, 측지 및 지도 작성, 지형물의 명명,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 러시아연방의 국가포상 및 명예 칭호
- 연방 국가업무

●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업무

- 연방구성주체들의 자치적인 헌장, 법률 및 기타 규범적 법문서의 러시아연방 헌법과의 적합성의 보장
- 사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수호, 소수 민족의 권리보호, 적법성, 법질서, 사회 안전의 보장, 국경지역의 관리
-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문제
- 국유재산의 구분
- 자연의 이용, 환경 보호 및 생태학적 안전 보장, 특별자연보호지역과 역사 및 문화기념물의 보호
- 양육,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스포츠 등의 일반 문제
- 보건문제의 조정과 가족, 부모, 아동의 보호, 사회보장
- 참사, 자연재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조치의 실행과 그 처리
-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과세 및 징수금의 일반 원칙의 확립

-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족, 주택, 토지, 수자원, 산림, 지하자원,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
- 재판기관 및 법 보호기관의 직원, 변호사 및 공증인 제도
- 소수민족사회 원래의 주거환경 및 전통생활 양식의 보호
- 국가 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체제조직원칙의 학립
-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의 조정,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이행

● 연방 관구

- 러시아 중앙중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체제 확립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역을 8개의 연방관구로 구분하고 각 관구별로 대통령 전권대사를 파견하고 있음.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사를 임명하며, 각 전권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관구 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조정, 통제 및 감독하고 있음.

구분	관 구 명	관구소속 연방구성주체	중심 행정도시	비고
1	중앙 연방 관구	18	모스크바	
2	북서 연방 관구	11	쌍트페테르부르크	
3	남부 연방 관구	6	로스토프나돈누	
4	북 카프카즈 연방 관구	7	피찌고르스크	
5	프리볼스키 연방 관구	14	니즈니노보고로드	
6	우랄 연방 관구	6	예카제린부르크	
7	시베리아 연방 관구	12	노보시비르스크	
8	극동 연방 관구	9	하마로브스크	

- 한편, 지방정부 수반의 대통령 임명과 연방관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자치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전권대사와 지방정부 수반과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

3. 국가 조직

■ 대통령

러시아 헌법에 의거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직선제를 기반으로 하는 6년 임기(중임 가능)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 1991년 러시아의 수립과 함께 도입된 대통령제는 1993년 신헌법 채택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확립하였으며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대통령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 ‘초대통령제’라 일컬어지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음.

초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것으로 일례를 들면 총리를 제외한 부총리, 장관을 의회의 동의 없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 해산권, 법안제출권 등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특별사면권, 불가침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판사임명권과 검찰총장 임명과 해임을 제안할 수 있는 등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회의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화되어 있었음.

또한 지방 정부의 수반의 대통령 임명과 연방관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자치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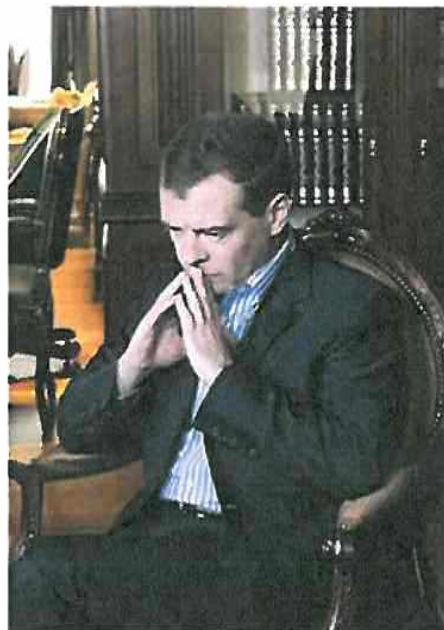
<역대 러시아 대통령과 재임기간>



〈보리스 옐친: 1990.5~1999.12〉



〈블라디미르 푸틴: 1999.~2008, 2012~2018〉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8.5~2012.5〉

연방헌법에 의거한 대통령 중심제의 성격과 특징

-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국가원수로서 국내 및 국제 관계에 있어 러시아 연방을 대표(제80조)함과 동시에,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제87조).
-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제80조)등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가권력의 정점에 위치
-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고, 정부사퇴에 대한 결정권, 총리의 제청으로 부총리 및 연방 장관들의 임명, 해임권등(제83조), 행정부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님.
- 의회와 관련해서는 국가두마 해산권을 비롯해 국가두마 선거를 지정, 법안 제출권 및 서명 공포권 등(제84조) 상대적으로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님.
-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은 과도한 사법적 재량권을 행사함. 즉, 특별사면권(제89조), 대통령령과 명령(제90조)을 발할 수 있으며, 불가침권(제91조)도 보유한 가운데 연방회의에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중재재판소 판사들과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제안하며, 여타 연방 재판소들의 판사를 임명(제83조).
- 아울러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보하도록 함(제88조)

■ 행정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러시아 행정부는 대통령의 국정명령에 대한 수행을 담당하고 있음. 1997년 12월 7일 제정된 “러시아 연방의 정부에 관한 법률(O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은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두마(하원)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임명함. 또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함은 물론, 정부의 조직을 개편할 수 있음.

러시아 행정부는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함.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8일 제6대 러시아 대통령직에 취임하며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음. 개편의 주 내용은 제1부총리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부처를 3개 늘리는 것이었음. 주목할 만한 점은 극동지역을 개발 전담할 ‘극동개발부’의 신설과 반정부 시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열린정부 소통부’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러시아 행정부는 국무총리 1명, 제1부총리 1명, 부총리 6명, 21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 입법부

- 러시아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다. 연방회의이라 불리는 상원은 83개의 연방주체의 행정부 수반(지방정부 주지사)과 입법부 수반(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각 연방주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 166명(83개 연방주체 $\times$ 2인 = 16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원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 간의 경계선 결정,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한 승인, 해외 군사력 파견 결정,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2004년 12월 푸틴 전 대통령이 지방정부 주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상원의 행정부 견제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임.

하원(State Duma)의 구성은 225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지역대표 225명과 정당명부에 의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225명 등 총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원은 총이 및 중앙 은행 총재의 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결의, 대통령 탄핵 발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지난 2011년 12월 4일 치러진 총선은 5년 임기의 국가두마 첫 선거로, 푸틴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은 49.5%를 득표해 238석을 얻어 과반을 넘어섰으나 지난 선거에 비해 77석을 잃었으며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또한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29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4개자리를 야당이 차지하여 이전에 비해 여권의 정치적 힘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대안이 될 만한 야당 세력이 없어 여전이 푸틴 행정부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사법부

러시아 사법제도는 소련의 해체된 이후 90년대 초의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서 정착되었음. 개혁의 주된 목표는 소련 시절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었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사법제도 개

혁과 사법부 독립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러시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로 이루어져 있음. 헌법 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 구성공화국 헌법재판소로 나뉨.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률 등 제 법령의 위헌여부 및 연방정부 기관간의 권한 분쟁을 심사하며, 연방구성 공화국 헌법 재판소는 상동 업무를 공화국 내 차원에서 실시함.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관할하는 러시아의 일반법원은 여러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각 지방의 지역(Ragyon) 및 일반 시(City)의 법원이며, 2단계는 지방(Kray)법원과주(Oblast)법원,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시법원 등임. 연방 구성공화국의 대법원과 자치구 법원도 2단계에 구성되며. 법원의 최고 상위는 연방대법원이라고 함.

중재재판소는 주로 경제 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법률행위들을 심판하며, 최고단계에 고등중재재판소가 있음.

러시아의 재판제도에도 부분적인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배심원제도의 도입과 판사의 독립성 확보임. 지난 2001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판사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3종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서명한 바 있음. 또한 1993년 일부 지방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됐던 배심원제도가 본격 도입돼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제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과도한 사법적 재량보유 등으로 사법부 대통령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로 사법부의 완전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III 주요 연수도시 현황

1.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란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뜻이다. 동해 연안의 최대 구도시 겸 군항이다. 소련 극동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해군기지이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북빙양 항로의 종점이며,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종점이기도 하다. 항만은 포트르 대제만에서 남쪽으로 돌출한 무라비요프아 무르스키 반도 끝에 위치하며, 시가는 해안에서부터 구릉 위로 펼쳐져 있다. 철도 종점인 임항역의 북쪽이 시의 중심지구이다.

신시가지와 별장·휴양 지대는 반도 북부의 구릉지대로 뻗어 있다. 1856년 러시아인이 발견하였으며, 그 후 항구와 도시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1872년 군항도 니콜라옙스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189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1903년 시베리아 철도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모스크바와도 이어지게 되었다. 1918년 봄부터 1922년까지 이 지방은 외국의 간섭군대에 의해 점령된 적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원조물자를 이곳에 양륙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군항일 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무역항의 기능이 시의 동쪽 약 90 km 지점에 신설된 나홋카항으로 옮겨졌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지방 최대 어업기지이며, 포경선·게 가공선·냉동선의 근거지이다. 겨울철에는 항구 안이 다소

결빙하지만, 쇄빙선을 사용함으로써 1년 내내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다. 시는 연해지방의 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극동과학센터·국립극동대학을 비롯하여 의학·미술·과학기술·무역·수산 등의 여러 대학이 있다. 하지만 2011년 하나의 국립극동대학교로 통합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대규모 캠퍼스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국립극동대학 내에는 해외 최초의 한국학 단과대학인 한국학대학이 있다. 1995년에 설립된 한국학대학은 5년제 과정으로 한국어학과·한국역사학과·한국경제학과의 3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태평양어업·해양학연구소와 부속해양박물관이 유명하다. 2012년에는 APEC 정상회담이 열렸다.

2.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지방의 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이자 극동지방 최대의 도시이다. 우수리강과의 합류점에 가까운 헤이룽강 중류 우안에 있는 요충지로서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며, 헤이룽강 수운의 중심을 이루는 하항이 있다. 17세기 중엽 러시아 탐험가 E.P.하바로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현대적인 도시는 1858년에 군사전초기지로 건설되었다. 1905년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였다.

3. 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서쪽, 안가라강과 이르쿠트강의 합류점에 위치하며, 안가라강이 시가를 종단하고 있다. 동시베리아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시는 카자크가 만든 동영지로부터 발달하

였으며, 1661년에는 목조 성채가 지어졌다. 그후 러시아와 몽골·중국과의 교역로의 중심지로서 모피와 금 거래가 활발하였다.

1803년부터는 시베리아 총독부, 1822년부터는 동시베리아 총독부가 있었으며, 1898년 시베리아 철도가 들어선 뒤부터는 공업도 활발하여 부근의 체렘호보 탄광의 채굴도 촉진하였다. 제정시대에는 18세기 초 부터 정치범의 유형지로서도 유명하였다. 현재는 광업용 중기계류·공작기계·전기기계 등의 기계 제작업, 마카로니·과자·식육·버터·유지·제분 등의 식료품 공업, 가구·신발·펠트·피혁·메리야스 등의 경공업 및 운모 가공업, 철근 콘크리트·건축자재·항공기·오토바이 제조업 등이 발달해 있다.

4. 모스크바

강에서 이름을 딴 모스크바는 1147년 러시아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만 해도 일체 한촌이었으나 볼가강과 오카강 사이에수운의 징계지로서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모스크바 공국의 수도가 되어 크게 발전하였고 18세기에 쌍트페터르부르그로 수도가 옮겨진 뒤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수공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다시 발전하여 러시아혁명 후 다시 수도가 된 뒤에는 소비에트 시대에 정치, 문화,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거대도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북위 55° 동경37° 에 위치한 모스크바는 994km²의 면적에 약 1천5백만명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 시차

GMT보다 3시간 빠르고 한국보다는 6시간이 늦으며 한국에서 이곳으로 주 5회 정도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약 9시간 정도 소요된다.

■ 기후

여름에는 더울 수 있지만 대체로 시원하며 겨울은 평균영하 10도 정도이며 심한 대륙성기후로 기후변동이 심한편이다.

■ 도시의 구성

과녁 판으로 생각 할 때 과녁의 중심의 크레믈린이 위치에 있고 이곳의 3면을 마르크스대로, 크레믈린 강변도로 그리고 붉은광장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둘레를 3개의 환상도로인 불리바르 환상도로, 사드바야 환상도로, 모스크바 환상자동차 도로가 차례로 둘러싸고 있다. 고리키거리 같은 주요대로 들은 크레믈린에서 방사선으로 길게 뻗어있다.

■ 교통편

메트로, 보스, 트롤리 버스, 트람바이(전차)등이 곳곳에 연결하고 있으며, 행선지의 이름을 딴 9개의 열차역이 있어 러시아 전역과 연결된다.

5.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1시간2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있다. 피터황제가 1703년 네바강과 연계하여 발트 해로 나가는 길목에 요서를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몇 년 전만해도 레닌그라드로 불렀던 러시아의 고도 페테르부르크. 네바강 연변에 있는 바다는 발트 해이다. 결국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직접 유럽으로 나가는 통로인 것이다. 피터 대제가 그 진출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그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18세기 초에는 성 페테르부르크, 레닌 사후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리기도 했던 이 도시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부활한 러시아의 살아있는 역사인 셈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1947년부터 43년까지 무려 3년 동안 독일군에 저항하면서 불굴의 러시아 정신을 드높였던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이곳 시민 80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 그들 무명용사의 묘지를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가꾸었다고 한다.

현재 5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그 역사만큼이나 무수한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 많은 기념비와 유적들이 있고 그 유적들을 감싸며 흐르는 아름다운 네바강과 그 강변의 건물들도 아름답다. 공원들 마다 한 시절 레닌그라드로 불리었던 만큼 레닌동상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답게 100여개 섬과 섬을 연결하는 360개의 다리가 있다.

VI 방문지별 주요견학 현황

1. 블라디보스토크 독수리 전망대



독수리 전망대

블라디보스토크의 독수리 전망대는 이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중요한 군사기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수리둥지라 불리는 Orlinoye Gnezdo(오를리노예 그네즈도)라는 산이 그곳으로, Eagle Nest(새 둥지)라는 의미이다 전망대의 뒤쪽으로는 극동연방대학교(과거 극동국립기술대학교)의 건물과 기숙사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도보로도 가능하나 저렴한 요금으로 푸니쿨로르(케이블카와 유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이를 수 있다.

이 산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높지만 정산의 높이는 214m이다. 전망대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와 내해(內海)깊숙히 들어온 아름다운 골든혼(Golden Horn, 금각만)을 한눈에 볼수 있는데 특히 금각만을 가로지르고 있는 교량인 금각교의 모습이 빼어나다.

또한, 야경이 아주 멋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이며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들이 꼭 한번 들려서 웨딩촬영을 하는 곳이다.

독수리 전망대에 앞에 있는 동상은 러시아 알파벳인 키릴 문자를 만든 키릴 형제의 동상이며 정교회의 러시아 성경을 체계화했던 노력이 러시아 문화 발전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후기 >

세계 최대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GDP의 약 24%, 총 수출의 약 71%를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와 환율 등 국제시세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연수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자유항 연방법’이 시행중이었다.

이법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와 유가하락에 따른 루블화 폭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개발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계획 하에 「러시아내 선도개발구역(TOR) 지정에 관한 법률」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연방법」 등을 제정하여 극동지역 개발로 돌파구로 삼으려는 푸틴의 확고한 의지가 보였으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의 유전과 가스전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할린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는 사업 등 양국간 에너지 자원협력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극동시베리아와 한반도가 접해있어 물류측면에서 유럽지역과 직접 연결할 수 있고 북극항로의 본격적인 개발 등에 있어서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와 한반도 종단열차(TKR)의 연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공급을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2. 시베리아(대륙) 횡단열차



시베리아(대륙) 횡단열차

러시아의 우랄산맥 동부의 첼랴빈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약 7,400km의 대륙횡단철도이다. 정식명칭은 ‘대 시베리아철도’ 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노선을 포함해 야로슬라브스키 역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역까지의 9,297km 구간을 지칭하며, 또한 넓은 의미로는 몽골 횡단 철도·동청철도·바이칼-아무르 철도(제2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포함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부른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항공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일본과 유럽을 잇는 연락운송에 있어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동양과 서양을 걸치는 노선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과의 직통운전도 있다.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는 안은 1850~60년대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시베리아 가도를 따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1887년에 조사해, 1891~92년에 걸쳐 착공하고 1897년 부분적으로 개통되었다. 철도의 전철화는 1929년에 개시해서, 2002년에야 전 구간이 완료되었다.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6박 7일을 달려 종착역인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까지 총 60여 개의 역에서 정차한다. 시베리아횡단 선은 아시아대륙 동쪽의 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중국 북부를 지나 바이칼 호를 남으로 끼고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를 거쳐 우랄산맥을 넘어 모스크바, 그리고 길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키까지를 이어주는 철도이다.

3. 항일 독립유적지

■ 고려인 역사 박물관



고려인 문화 센터 역사박물관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고려인 문화센터는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이라고도 합니다.

2004년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국의 재정지원과 기부금으로 지어져 극동지역 고려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민족단합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대지 1헥타르 건평 3,000여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문화센터로 고려인 민족 문화 자치회, 아리랑 가무단, 고려신문, 한글 및 컴퓨터 교육시설, 동북아평화연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완공 후에는 고려인 역사 박물관, 의료시설, 고려인 단체 활동 공간, 소수 민족 활동 공간, 기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명실상부한 연해주 고려인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37년 9월8일 스탈린은 일본인과 생김새가 흡사하여 스파이 노릇을 할수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고려인을 라즈돌리노예역으로 집결시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고려인에겐 타의에 의한 억울하게 삶의 터지를 박탈당한 것이었지만 러시아 통치자에겐 중앙아시아 노동력 보충을 위한 수단 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0여명의 한인 지도자들이 숙청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16,272가구 76,525명, 카자흐스탄 20,170가구 95,256명 등 총 36,442가구 171,781명이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다.

중앙아시아 황폐한 벌판에 버려진 한인들의 삶은 비참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배움의 길도 닫혔으며 국가기관 취업등의 사회진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주 다음해에 7,000여명, 그 다음해에는 4,800여명의 이주 한인이 사망하는 생존까지 위협받는 힘겨운 삶이었다.

■ 항일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선생 고택 방문



최재형의 고택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최재형 선생(1858-1920)은 언론가, 교육가이며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 연해주로 건너가 러시아로 귀화, 청년시절 무역회사에 근무한 최재형은 한인 노동자들의 대우가 열악함에 통역으로 나서서 한인들이 임금을 더 받도록 도왔으며 그 후 최재형은 군수산업에 뛰어들어 기업의 기초를 닦았고 한인들을 고용하며 힘을 모아 한인들 생활개선에 앞장섰습니다.

한인들의 삶은 윤택해지며 지위가 향상되고 그가 세운 소학교가 30여개로 한인 자녀들을 상트페테르부르트에 유학하게 하였음.

러일전쟁에서 승리에 취한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조선을 침범하자 남부 연해주에서 의병 부대를 조직, 무장투쟁으로 맞서고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범윤 등과 독립군 수백 명을 훈련시켜 함경도 지방의 일제를 기습, 궤멸하고 국내까지 들어가 무장투쟁을 지휘합니다. 매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대동공보]를 창간, 일제에 대항하며 독립운동을 확장할 차에 그에게 조국의 청년 안중근과의 숙명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909년 조선총독을 처단하는 거사를 함께 논의, 그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까지 동행하며 거사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안중근이 하얼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품 깊숙이 최재형이 만들어준 [대동공보] 기자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모진 고문을 다하면서도 배후의 최재형 존재를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은 안중근에게 러시아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으나 일제가 안중근을 여순으로 끌고 가버려 안중근을 끝내 지키지 못한 자책감으로 안중근의 가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로 광기를 부리던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항하여 한인독립군 부대를 총 집결. 사단장으로 러시아군과 함께 시가전을 벌이다 체포, 사살되어 불꽃같은 그의 삶은 연해주의 하늘에 민족의 별이 되었습니다.

■ 독립운동가 이상설 유허비



보재 이상설 선생 유허비

대한제국의 문신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신 이상설 선생은 한학을 배워 조선시대 마지막 과거 합격자들 중 한 사람이었으며 젊어서 이미 대학자로 명망을 얻은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당시 한국인들 중 서구의 정치, 경제, 문화에 가장 해박한 축에 드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자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1906년 이동녕 등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연해주로 이주, 1907년 고종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위종과 함께 참석하였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전세계에 알리려 하였으나 일본의 계략으로 참석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설 선생은 연해주에서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하고, 《권업보(勸業報)》을 발행,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이상설 선생은 건강이 악화되어 1917년 3월 2일 48세를 일기로 순국하였습니다. 임종을 지킨 동지들에게 남긴 유언은 보면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내가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어찌 영혼인들 무슨 면목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내 시신과 유품을 모두 불살라 시베리아 벌판에 뿌리고 조국이 광복되기 전에는 제사도 지내지 말라” 는 이상설 선생의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솔빈강가에 뿌렸으며, 2001년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이곳에 유허비를 세웠다고 함.

※ 유허비란 역사적 사실이 기록에는 있으나 유물이나 문화재가 전혀 없는 장소인 유허지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말한다.

< 항일역사탐방 방문후기 >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히 연해주 곳곳에 발해의 유적지들이 널리 퍼져 있으며, 구한말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항일투쟁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가 역사교과서에서조차 배우지 못했던 최재형 선생님의 고귀하신 희생과 더불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연해주지역 항일독립유공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던 연해주 지역의 한국독립운동 유적지는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듬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자 미래를 설계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식민주의적 억압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없이 자신들의 위상 제고만을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한국 양국이 함께 협력하여 항일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보존과 관리 및 연구에 힘쓴다면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2014년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과 2017년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국외 소재 한국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관리 실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게 된다. 안내판 덜렁 하나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였다. 우선 재원 마련으로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으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축으로 연해주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나마 러시아 동포들의 적은 성금으로나마 가까스로 보호되고는 있었지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어제가 모여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되듯이 과거 없는 현재는 없으며 현재 없는 미래도 없을 것이다. 낯선 타국 땅에서 오매불망 조국의 해방과 독립만을 바라면서 산화하신 우리 선열들의 과거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재가 되었으며 한다.

4. 발해성터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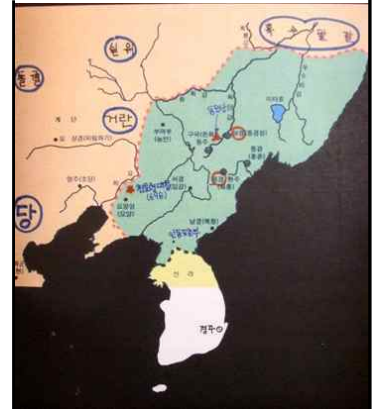
발해성터 유적지

이상설 선생의 유허지 앞을 흐르는 수이푼강 건너편에는 발해성터가 있다. 이곳이 발해시대 5경15부(지방행정구역) 중 하나였던 술빈부가 있었던 자리이다. 수이푼강이 술빈강으로 불리는 것도 발해시대의 영향인 것 같다.

< 발해 유적지 방문후기 >

발해하면 학창시절 그저 안타까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배웠던 기억부터 떠오른다.

광활한 중국대륙으로의 뻗어감에 무한하리라 믿었던 고구려의 기상이 맥없이 무너진 후 그 드높았던 기상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을 향하여 갔다던 대조영은 마침내 발해라는 나라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우리 역사의 번영을 꿈꾸게 하였다고



그러나 그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고 당의 주변국이었던 거란에 의해 허망히 무너져 우리의 광활한 대륙으로의 도전은 그렇게 막혀 버렸다고만 알고 있던 발해를 이번 연수를 통해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여제 측천무후의 지시를 받고 달려온 거란족의 장수 이해고를 천문령에서 대파하고 동모산에서 진국을 세운 대조영, 그렇게 발해는 고구려의 명맥을 이어받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5대 애왕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발해는 당시 장안 다음으로 동북 지대 최대의 수도인 상경의 모습으로 그 번성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변국인 거란과 일본 및 당과 신라와 당당한 고구려의 후예로서 외교와 교역을 발휘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던 발해의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와 발해인들의 생활상과 그들만의 독특한 사상과 문화·예술까지 알게 되어 더욱더 발해가 우리의 중요한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당이나 신라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짧았던 고려의 한학자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발해의 역사를 조선 후기에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더구나 21세기에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중국에 의해 다시금 발해의 역사를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인 우리는 결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번연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발해인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통해서 다시금 발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하바롭스크 중앙재래시장(바자르)



서민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앙재래시장 (바자르)

하바롭스크 구시가에 위치한 대규모 재래시장으로 하바롭스크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어로 바자르(지붕이 덮인 시장이라는 뜻)라고 부르는데 레닌광장 근처의 푸시킨 거리에 위치한다.

시장에서는 건물 안과 밖에서 모두 장사가 이루어진다. 건물 안에서는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다른 재래시장처럼 음식, 애완동물, 음반, 의류, 골동품 등을 판매한다.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데,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야쿠트족(Yacut), 집시 등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흥미 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 식품을 파는 고려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며, 중앙시장은 하바롭스크 서민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의 생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 중앙재래시장 방문후기>

하바롭스크 중앙재래시장 방문을 계기로 우리북구 전통시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얼마 전 우리지역의 3호선의 개통으로 북구 전통시장 상권이 서문시장 등 중구와 수성구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외부요인으로 상권이 유출되었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서문시장의 경우 최근 국비를 지원 받아 야시장을 조성하여 대구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야시장은 중앙도로에 80~100개 점포를 조성해 작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최근 화재로 잠정 중단 상태이다

그럼 우리 북구의 시장은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 칠성시장과 팔달시장이 야시장으로의 도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지 서문시장이 한다고 해서 혹은 야시장이 단지 밤에 시장 문을 열겠다는 것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이 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와 식품 위생 허가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 전에 개별 시장별로 자체 축제기간 내에 특화된 상품 혹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북구 특성에 맞는 세계 음식 축제, 전통 공연 등을 개최하여 축제기간 중 야시장을 시범적으로 열어 보고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 안경 특구로서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특화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과 북구내 안경점에서 안경 구매 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북구 내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이용가능 하도록 만들어 안경산업 발전과 전통시장 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6. 이르쿠츠크 주청사



이르쿠츠크 주청사

이르쿠츠크 주의 명칭은 동사얀 산맥에서 양가라 강으로 흘러드는 이르쿠트 강에서 기원한다. 1628년 양가라 강 중류의 첫 요새를 비롯해 곳곳에 요새가 건설되었고, 1662년 바실리 예즈다코프가 지휘하던 요새의 명칭이 이르쿠츠크 요새로 바뀌었다. 시베리아 이주민들은 금, 은, 철, 운모 등 유용광물 채굴 및 제련을 주요 산업으로 지역을 발전시켰다.

현재 이르쿠츠크 주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으로 동시베리아에 위치하며, 북동으로 야쿠티야 공화국, 동으로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 변경, 남서로 티바 공화국, 서로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과 경계한다. 주의 면적은 77.48만km²로 러시아 연방주체 중 5위이며, 대한민국 영토의 약 8배에 해당한다.

주의 행정단위는 9개 시, 33개 군, 67개 면, 365개 리로 구성되고, 인구는 241.7만 명(2014.1.1 기준)이며, 이중 79%가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주도시는 이르쿠츠크 시로 주의 남측에 위치하고 인구는 60.61만 명 (2013.1.1 기준)이며, 모스크바와의 거리는 5,042km이다.

이르쿠츠크 주는 석유 및 가스, 금, 철, 석탄, 운모 등 지하자원과 목재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한다. 특히 주의 동편 부랴티야 공화국과 경계에 위치한 바이칼 호수, 이르쿠츠크 시내를 가로지르는 양가라 강과 야쿠티야 공화국을 통해 북극으로 흘러나가는 레나 강 등 수자원이 풍부하다.

이르쿠츠크 주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이하 TSR)와 바이칼아무르철도(이하 BAM) 등 주요 노선을 비롯해 2,307km의 철도가 지나고 이르쿠츠크 시와 브랴츠크 시에는 국제공항이 소재한다.

<이르쿠츠크 방문후기>

우리나라는 동시베리아의 중심인 이르쿠츠크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교류를 맺고 있다. 경상북도와 우호관계, 강릉시와는 자매결연, 충청남도 의회와 이르쿠츠크 주의회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있다, 대구시와 우리구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정산업과 의료산업 등의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2013년 이르쿠츠크의 발표에 따르면 이르쿠츠크와 한국의 교역량은 수출 및 수입액은 각 21.61억 달러와 1.7억 달러로 그 비중은 중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르쿠츠크의 주요 수출품은 연료, 알루미늄, 펄프, 목재, 철강 등 천연자원 및 그 가공품이 주를 이루며, 수입품은 무기화합물, 플라스틱, 일반차량, 철강, 유기화합물 등 2차 산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원료, 가스 등)을 가진 동 시베리아로 진출을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 이르쿠츠크와는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낙후한 시베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12.7 경기도 고양시가 이르쿠츠크와 보건분야 MOU 체결을 하였으며, 2013.5 서울 강남구 의료관광대표단의 홍보회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미팅 및 진료상담 진행하였으며, 2013.8 전남대병원과 이르쿠츠크 의료기관 간 MOU 체결, 2014.3 삼성서울병원이 관광박람회 바이칼 투어에 참가하는 등 한국 의료관광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여러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대구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매개로 이르쿠츠크와 MOU체결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7. 모스크바 지하철



모스크바 지하철

평일 평균 이용객 9백만 명, 모스크바 교통의 52%를 차지하는 교통수단, 바로지하철이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교통 분담률이 특히 높은 데에는 러시아의 웅장 함과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예술적인 승강장이 한 몫 한다. 총 292.2km, 177개 역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중에 하나인 모스크바 지하철은 1935년 10월 15일 손님을 싣고 콤소모스카야 역에서 소코르니키까지 단지 두 차량만 연결한 채 첫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모스크바 지하철의 길이는 약 301km에 달하며, 12개 노선에 186개 역을 가지고 있음. 모스크바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도쿄 지하철 다음으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임. 일일 이용자는 평균 약 900만명에 달하며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모스크바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1935년 5월 15일 처음 개통되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개발되었음. 처음 완성되었을 당시, 지하철 노선은 11.5km에 13역이 있었으며, 14개의 열차가 운행되었음. 첫 노선은 소콜니키역에서 파르크 쿨투리역까지 이어졌고, 중간에 스몰렌스카야역으로 가는 분선이 있었음.

이 선은 나중에 아르바트 선이 되었으며, 1938년 키예프스카야역까지 확장되었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스크바 지하철은 독일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었음.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한 1941년 10월 15일에는 모스크바 지하철의 책임자인 카가노비치는 비밀리에 지하철 폭파 명령을 내렸다고 함.

모스크바 지하철은 전 구간에 걸쳐 독일군이 지하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지시하는 한편, 차량은 대피시키기로 계획했음. 이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모스크바 지하철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행하지 못했음. 하지만 당일 저녁에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진격을 멈춤에 따라 폭파 명령은 취소되었고 지하철은 다시 운행을 시작했음.

모스크바 시의 지하철은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와 노보시비르스크 등 다른 러시아의 도시에도 지하철이 생기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북한의 평양 지하철 역시 모스크바 지하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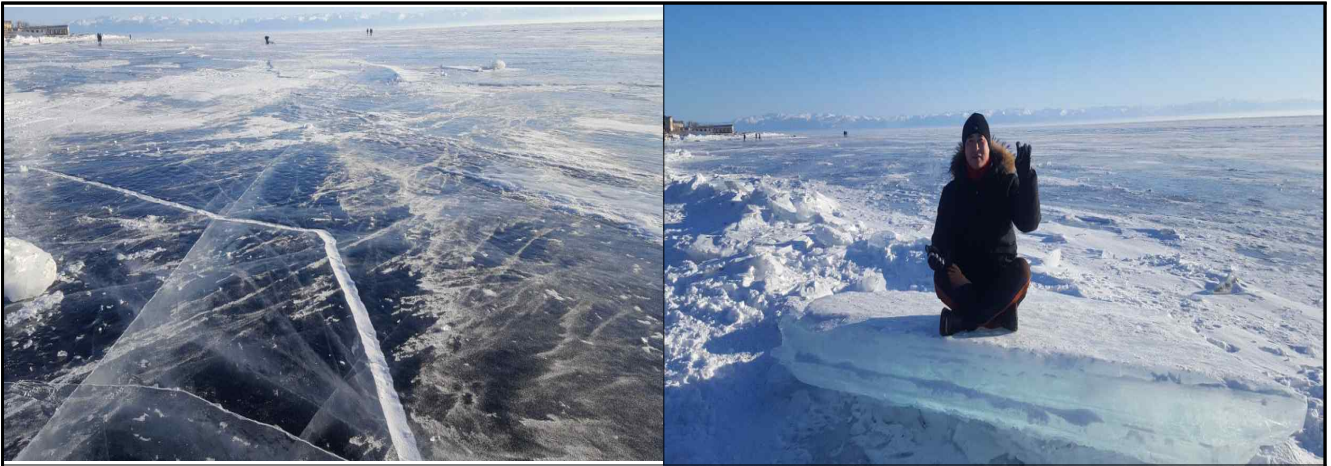
노선	노 선 명	첫개장	마지막건설	거 리	역
1	소콜니체스카야 선	1935년	1990년	26.1km	19
2	자모스크보레츠키야 선	1938년	1985년	36.9km	20
3	아르바트스코 포크롭스카야 선	1938년	1985년	36.9km	20
4	필롭스카야 선	1958년	2006년	14.9km	13
5	콜체바야 선(순환선)	1950년	1954년	19.3km	12
6	칼루시스코 리시스카야 선	1958년	1990년	37.6km	24
7	타간스코 라스노프레스넨스카야 선	1966년	1975년	35.9km	19
8	칼리닌스카야 선	1979년	2012년	16.3km	8
9	세르푸홉스코 티미랴젭스카야 선	1983년	2002년	41.2km	25
10	류블린스코 드미트롭스카야 선	1995년	2011년	28.2km	17
11	카홉스카야 선	1995년		3.3km	3
12	부토프스카야 선	2003년		5.5km	5
총 합 308.7km 186개소				308.7km	186

특히, 모스크바 중심가에 위치한 빠르그 빠베디역(승리공원역)은 모스크바 182개 지하철역 중 가장 깊은 지하 85m에 건설되었으며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126m(계단 수 740개)에 달한다고 함.

열차는 평균 1분 30초 간격으로 운행되고, 출근 시간대 에는 열차가 20~30초마다 역을 통과한다고 함. 승강장은 돔형의 천장과 벽에 샹들리에, 그림 등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갤러리에 온 느낌을 주었으며, 모스크바의 역들은 각기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와 모자이크 장식으로 궁전의 면모를 보여주는 곳, 소비에트 시대 영웅의 동상과 벽화들로 혁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 매끄러운 대리석과 화려한 조명으로 고급 호텔의 내부를 연상시키는 곳 등 각각의 역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궁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조명기구나 장식들은 물론이고 소소한 환풍구와 역 이름마저도 각기 디자인이 달라 역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고 지하철역을 돌며 구경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많은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0m 깊이의 지하임에도 환기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소음이 매우 큰 편이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하철의 상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었음.

8.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로 알려져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도 하는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 호수 바이칼 호수의 면적은 31,494 km²이며 최대수심도 1,742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기도 하다. 호수의 투명도가 높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시베리아의 진주」라고도 불리지만, 25만명의 동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지상최대의 공동묘지이기도 하다.

때는 1917년 2월, 제정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자 새롭게 정권을 쥐게 된 소비에트 정부의 혁명군(적군)과 제정 러시아의 부활을 노리는 백군이 벌인 전쟁인 적백내전이 시작됨. 내전은 독일이 뒤에서 지원한 적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1919년 11월엔 백군의 거점이었던 옴스크가 함락됩니다. 거점이 함락된 백군은 재기를 꿈꾸며 적군의 추격이 닿지 않는 시베리아 안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백군 50만 병사와 제정시대 귀족, 승려 등을 포함해 여성이나 어린아이들까지 가세한 망명자는 125만명까지 늘어나, 동쪽을 향해 8000km나 되는 시베리아 횡단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행군을 시작한 건 겨울, 기온은 매일 영하 20도 근처를 오가고, 격렬한 눈보라에 동사자가 속출하는 행군이었던. 20만명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동사하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이들의 「죽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3개월 뒤에는 125만명으로 시작된 것이 2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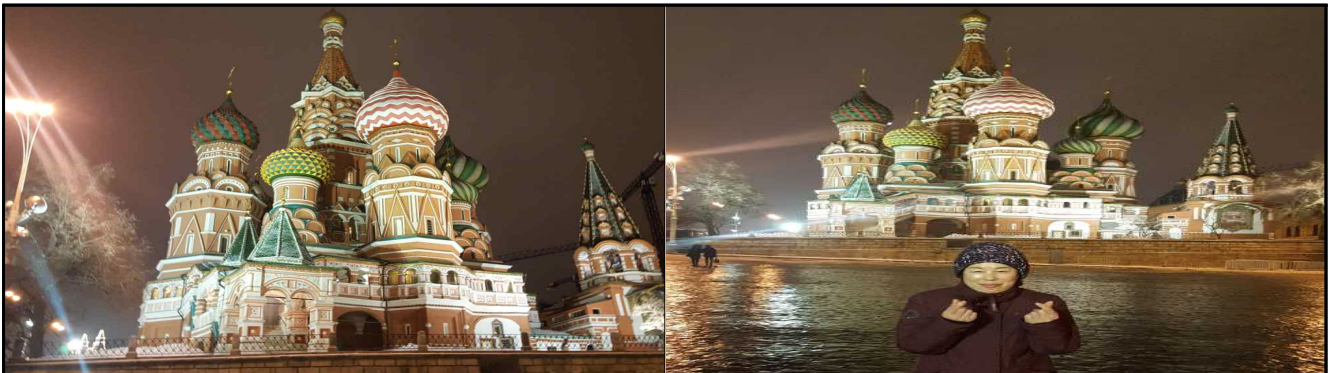
연료, 식량 모두 바닥을 드러내고, 짐을 운반하기 위한 말도 대부분 쓰러진 상황에서 남겨진 25만명은 그래도 행군을 계속해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엔 얼어붙은 거대한 호수, 바이칼 호수가 기다리고 있던 상황. 호수 반대편까지만 이동하면 적군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낸 백군 잔당은 두껍게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의 횡단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전대미문의 격심한 한파가 백군에게 몰아닥쳐 눈보라에 의해 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고,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추위에 사람들은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이윽고 동사자가 속출하면서 바이칼 호수 위에 살아있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바이칼 호수 위에서 백군은 전멸하고 만다.

그리고 봄이 오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고, 바이칼 호수 표면의 얼음도 녹기 시작하여 얼음 위에 얼어있던 25만명의 동사자 시체도, 세계에서 가장 깊다고 알려진 바이칼 호수 바닥으로 사라졌다. 바이칼 호수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평온히 쉴 자리를 찾지 못 한 수 십만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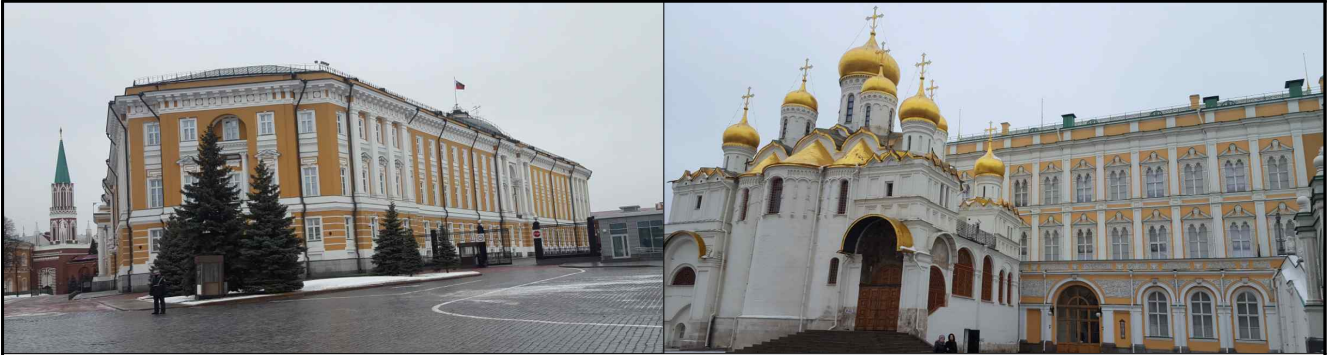
9. 성바실리 성당



성바실리 성당

모스크바의 화려하고 웅장한 러시아 교회 건축의 백미로 알려진 곳으로 불균형이 가져다주는 묘한 아름다움, 성 바실리 사원으로 붉은 광장 진입로로 들어서는 모든 관광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아 버리는 아름다우면서도 묘한 느낌을 주는 성 바실리 성당이다. 200여 년 간 러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몽골의 카잔 한(汗)을 항복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반 대제의 명령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사원의 이름은 이반 대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수도사 바실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555년에 착공해 1561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자 이반 대제는 그 아름다움에 탄복, 더 이상 이와 같은 성당을 짓지 못하라는 뜻으로 설계자인 포스토尼克과 바르마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각양각색의 색채와 무늬를 자랑하는 9개의 양파형 돔 지붕으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 정교 사원은 가장 러시아적이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색 있는 건축물로 정평이 나 있다

10. 크레믈린 궁



크레믈린 궁

러시아어로 ‘성채’를 뜻하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중심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가에 있는 옛 러시아 제국 시절의 궁전이였다. 모스크바 말고도 노브고로드,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아스트라한에도 크렘린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2.25km의 성벽과 스무 개의 성문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여러 시대 양식의 궁전이나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폐지된 후 소련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의회가 설치되면서 소련 공산당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관저와 정부 기관이 이곳에 있다.

11. 예카테리나 궁전과 호박방



예카테리나 궁전과 호화로움의 극치 호박방

황제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명승지 중 하나인 예카테리나 궁전은 전면이 옆으로 길게 300m나 늘어져 있으며 850m²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발쇼이 홀은 라스트렐리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 홀은 서로 마주보게 놓여진 2층짜리 거대한 창과 거울을 통해 쏟아지는 빛들이 바다처럼 덮여 있는 듯하다. 아주 깊은 하늘이 그려진 천정화 「러시아의 승리」에는 어려운 원근법으로 묘사된 신화의 인물이 있고, 원근법으로 축소 전망되는 테라스의 낭간과 주랑은 밝은 화랑이라 불리는 작지 않은 7m의 높은 홀을 시각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듯하다. 호박방과 그림 홀 등 여타 궁전 내부 라스트렐리의 창작들은 세계적인 명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 에르미타쥐 박물관(겨울궁전)



에르미타쥐 박물관(겨울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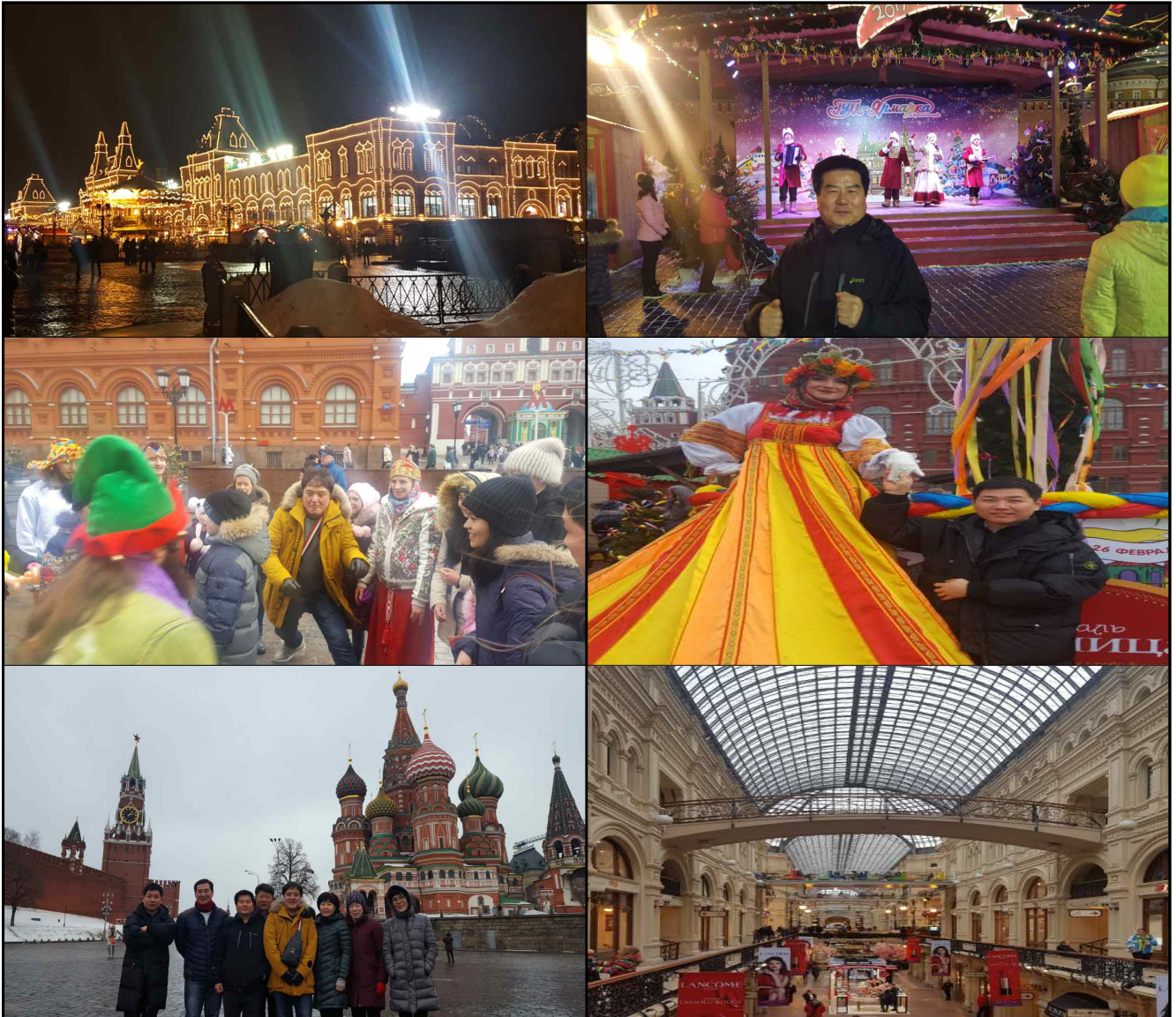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에서 초빙한 뛰어난 건축가와 조경사들은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냈다. 그 중 백미는 당연히 에르미타쥐 국립미술관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패권을 잡았던 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에르미타쥐 만큼 전 세계 예술품을 골고루 소장한 미술관은 쉽지 않다.

외관조차 황금빛과 파스텔 녹색으로 조화를 이뤄 도시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바로크 스타일의 기품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겨울 궁전 에르미타쥐 박물관은 역대 로마노프 왕조의 거쳐있던 ‘겨울궁전’과 네 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다.

1000개가 넘는 전시실에 약 250만점에 달하는 전시품들, 그래서 완전히 돌아보는데 점당 1분씩 잡아도 5년이 걸린다. 총 3층으로 원시문화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인상과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2층은 가장 인기 있는 코너로 마티스의 대작인 ‘댄스’를 볼 수 있다.

모네, 피사로, 고흐, 고갱과 같은 다른 인상과 대가들의 그림역시 빼놓을 수 없다.

13. 붉은광장



붉은광장

붉은 광장은 국립 역사 박물관과 굼 백화점 및 양파머리 모양의 바실리 사원에 둘러싸여 있는데, 전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던 시장이었다. 그라스나야 뵐로샤지, 즉 현재는 "붉은"으로 해석되는 광장의 명칭은 고대 러시아어로는 "아름다운, 이쁜"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본 의미는 "아름다운 광장"이었으나 많은 이들은 메이데이와 혁명 기념일에 붉은 색의 현수막이 국립 역사 박물관과 굼 백화점의 벽에 걸리고, 사람들도 붉은 깃발을 손에 들고 있어서 광장이 온통 붉은 색이 되었다는 데서 그 명칭의 유래를 찾기도 한다. 붉은 광장 주변에는 아직도 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레닌의 묘, 불균형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 바실리 사원, 국립 역사박물관, 모스크바 최대의 백화점인 굼 등이 있다.

V. 연수 소감

금번 러시아 연수는 의원 8명과 수행공무원 2명 총10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러시아 전역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비행기 6번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까지 먼 거리를 강행군하느라 무척 힘들기도 했으며, 시간관계상 좀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도 많았지만, 가능한 많이 보고 느끼면서 자기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해외 연수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해 직시해 볼 수 있었고, 우리 구의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연수를 통한 경험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큰 자양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원 한명 한명이 지역사회 발전에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러시아 역사 문화 연수” 위주로 소감문을 기재한다.

이번 연수는 ‘러시아 역사문화 연수’로 의미를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미리 두었다.

1) 연해주 항일독립유적지 탐방 (민족정기 회복) 2) 연해주 발해유적지 탐방 (우리역사바로알기) 3) 유라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체험 (남북통일시대 대비) 4) 러시아 고려인 문화 탐방 (재외동포 이해) 5) 러시아 역사문화관광지 탐방 (지구촌 시대 교류) 6) 대구와 북구 지역 홍보 (지역발전 기대)

이번 연수를 통해 위와 같은 다양한 목적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며 대구 북구의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개척한 러시아 연수 방문일정과 콘텐츠를 더욱 보완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해외공무 연수의 모델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 영토인데도 한반도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발역이 있고,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도 있고, 일제 식민지시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터를 이루며 살아온 발해 유적지가 있다. 재외동포 고려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남북통일문제, 재외동포문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훌륭한 다목적 연수코스로 각광받을 수 있다.

1.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최근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로 한-일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일제 친일을 두둔하는 국정교과서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이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여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치며 독립 투쟁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항일 애국지사 이상설 선생 유허지와 연해주 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생가, 고려인문화센터 내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 기념비와 3.1운동 이전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 회의장소를 둘러보았다.

첫 방문지는 우수리스크 수이푼 강변에 세워진 이상설 선생 유허지. 우선 연해주 지역은 1910년 한일병탄 늑약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두만강 하구와 맞닿아 있는 연해주에는 1860년대 이후 이주해온 한인들이 한인촌을 이루고 살았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와 이어지는 연해주는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이었다. 안중근, 최재형, 이동녕, 홍범도, 이동휘, 신채호 등이 이곳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연해주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관심 부족 속에서 흔적조차 잊혀가고 있다. 애국지사들과 항일 유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차도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광활한 황무지였던 우수리스크 수이푼강 유역은 일제의 강압 통치를 피해 이주한 한인들 특유의 근면함으로 개간되어 옥토로 변했다. 밭해 성터와 밭해 절터 유적지 근처 수이푼 강변 무성하게 자란 수풀 한가운데 이상설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이상설의 유해가 뿌려진 장소는 찾지 못했고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에 의해 2001년 강가에 유허비가 설립됐다.

"동지들은 합심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광복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향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남김없이 불태우고 그 재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마라."

이것은 이역만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그의 비통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의 유언대로 시신은 화장됐고 유해는 수이푼 강에 뿌려졌다. 그가 쓴 글들과 유품도 함께 거두어 불살라졌다.

우리 일행은 100년 전인 1917년 3월 2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난 이상설이 남긴 유언을 다시 기억하며 그분의 애국심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상설 선생의 애국 혼이 굵이쳐 흐르는 수이푼 강기슭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듯해 숙연한 감정이 들었다. 반세기를 넘어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솟아 있

는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겠는가라고 위로해 본다,

이상설은 1907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이준·이위종 등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 일본의 침략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 만국평화회의가 끝난 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1909년 연해주의 항일전선에 합류해 이후 연해주와 중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연해주에서 1910년 유인석·이범윤 등과 함께 한일의병부대인 13도의군과 성명회를 결성했으며, 1911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업회를 조직하고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1914년 이동휘·이동녕 등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 정부라 할 수 있는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웠다. 1915년에는 상하이에서 독립운동단체 신한혁명당을 조직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두 번째 방문지는 연해주 대표 애국지사 최재형 선생이 일본군에 끌려가 처형당하기 전까지 살던 집. 현재 한국대사관에서 살던 집을 구입하여 지금 한창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중이라고 한다.

인근 고려인문화센터 내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 기념비도 둘러보았는데 최재형 선생과 각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최재형 선생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사전 모의할 때 함께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스승이었으며 이 일대 독립운동의 중심인물

이었다.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어 처형된 이후에도 안 의사의 가족을 돌보았다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과 독립운동가의 거목 최재형에 대해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최재형은 함경도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기근에 시달리던 그의 가족들은 최재형이 10살때인 1869년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살아 가던 조선인의 삶은 지독하게 궁핍했으며, 최재형은 12살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여 항구에서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나 그들과 같이 살게 된다.

선장 부부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던 최재형은 세계를 항해하다 한인 최초로 러시아 학교에 입학한다.

독립 운동의 무장 투쟁의 거목인 최재형의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그의 딸 최올가가 쓴 자서전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진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무역 중심 도시로 발전하며 한인 이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글과 말에 능통했던 최재형은 도로를 건설하고 군납업으로 큰돈을 벌게 된다. 당시 연해주 연추 사람들의 집집마다 최재형의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 그의 존재는 대단했다고 한다.

지금의 군수와 비슷한 도헌에 최재형이 선출되었을 때 한인은 10만명을 넘어 섰으며, 최재형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다 한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패전하고, 1905년 조선을 을사늑약에 따라 고종은 퇴위되고 군대는 해산하게 된다. 1906년 간도 관리사로 있던 이범윤이 의병들을 데리고 최재형을 찾아오고, 최재형은

그들에게 군자금을 대 군복, 무기, 숙식을 제공하자 의병들이 결집하게 된다.

1908년 "동의회"를 만들어 최재형이 총장이 되고 이범윤이 부총장이 되며 이위중, 안중근 등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때 단지 동맹도 만들어 진다. 당시 조선에 남아 있던 독립 운동가는 만해 한용운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지식인들은 친일 세력으로 변절하였다. 일본군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는데, "동의회"는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조선을 넘나들며 항일 무장 투쟁을 하여 일본군에 타격을 입혔다.

일본군은 패전한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여 최재형을 감시하게 하고,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을 징집하며 무기를 회수하게 한다. 최재형은 한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신문 "대동 공보"를 발행하는데, 이 신문은 중국,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다.

1909년 대동공보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신문을 본 안중근은 임시 정부의 재무 총장인 최재형을 찾아 온다.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성공하고 일본군에 체포된다.

최재형은 즉각 러시아 변호사를 보내지만 일본은 관선 변호사를 쓰게 하는데, 안중근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여 최재형을 보호하고 사형을 당한다. 이후 안중근의 아내와 아들이 최재형의 집을 찾아오고 최재형은 이들을 보살핀다.

1916년 최재형은 일본의 스파이로 누명을 쓰고 러시아 군에 체포되면서,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악화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후 1920년 4월 5일 일본군에 체포된 최재형을 즉각 총살된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은 일본군의 모진 고문에도 최재형이 없는 독립 운동이 어떠할지를 알기에 최재형을 불지 않고 죽음을 맞는다.

한편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최재형 선생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또 한 분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 이론가이며 운동가로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인 레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우스리스크에서 태어난 조선 여성으로 이름은 ‘김 알렉산드라 빼뜨로브나 스탄케비치’ (1885-1918)

그녀는 러시아 내전 와중에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에 체포되어 아무르 강변에서 처형되었다. 처형되기 전 러시아 극동지역 외무장관을 지냈고, 한인혁명가 대회(1918)를 열기도 했을 정도로 러시아 거물 혁명가였는데 현재 하바로프스크 군인회관 벽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당시 사형집행관은 “총살당한 많은 사람들 중 한 여인이 가장 영웅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조선여인이었다”고 증언했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아무르강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 조선인들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조선땅에 자유와 독립이 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백군과 일본군과 싸웠다. 나는 이제 열세 발자국을 걸겠다. 이 한발자국 한발자국은

조선의 13도를 상징한다. 이제 나의 걸음과 더불어 조선 13도 전체에 독립과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올 것이다. 자 이에 나를 쫓라”

나라 없는 설움과 울분에 차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가슴 뭉클함과 숙연함, 죄송함 등등 여러 상념을 동시에 느끼며 그분들의 애국심과 헌신성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화가 그분들의 피와 땀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독립지사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더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민족의식과 애국심이 고양되었으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해 국가의 배려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연해주 발해유적지 탐방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 112km 떨어진 우수리스크로 가는 도중에 과거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발해의 5경 15부의 하나인 솔빈부 옛 성터를 방문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에서 아무르강(흑룡강)변 하바로브스크까지 러시아 극동 지역은 약 150년 전 러시아가 땅을 차지하기 전부터, 그리고 1천여년 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인 발해가 지배하던 곳이었다. 발해는 지금의 북한과 중국 만주,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가 포함된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중국역사에 편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백제까지도 중국역사에 넣는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동북공정은 무엇인가? 중국은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동북공정에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고구려·발해 모두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구려이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은 고구려를 고대중국의 지방민족 정권으로 주장하고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1983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이 설립된 이후 1998년 중국 지린성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가 '고구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에 연구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고구려사연구재단을 발족했다.

중국의 한자는 황하문명에서 형성된 갑골문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끈 요하문명에서 태어난 골각문자가 수 천년이나 훨씬 더 앞선 것으로 조사되자 중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 14대 환웅인 치우천황 (사기에도 이민족으로 나옴)을 자기 조상이라고 우기는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대국을 앞세워 치밀하게 역사를 속이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발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고구려는 물론 발해에 대해서도 자세한 역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당나라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고구려의 위업에 놀라 고구려를 망하게 한 후 즉시 민족과 역사를 흔적도 없이 없애려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 인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온전하게 기록한 책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는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확실하게 우리 민족의 역사다. 중국 구당서에는 발해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 신당서에는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부여 해모수도 “나는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 점을 보면 부여, 고구려, 발해는 모두 단군에서 나온 나라들이다. 단군의 조선이라는 나라 앞에는 환웅의 배달국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환인의 한나라가 있었다. 한-배달-조선-부여-고구려-고려-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이다.

고서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인의 한나라는 3301년 지속되었고, 근거지는 텐산산맥 서쪽지역과 바이칼호 근방이라고 한다. 환웅의 배달국은 1565년간 지속되었고 발해만 부근에 정착했다고 한다. 뒤 이은 단군의

조선시대는 2천년간 지속되었고 47명의 단군왕검이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 연해주 곳곳에는 온돌과 토기, 기와(연꽃무늬) 등 고구려를 물려받은 발해의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

우리 일행은 막상 발해의 술빈주 옛 성터에 올라서니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보면서 탄성을 내질렀다.

우리 민족의 영광과 한이 오롯이 서린 곳. 옛 성터에서 그 옛날 광활한 만주 벌판을 누비며 호령하는 발해의 기상이 감전되어 느낄 수 있었다. 옛 성터 인근에 말목장이 있었는데, 발해 명마들이 중국에까지 소문났다고 하니 갑자기 발해인들이 말을 타고서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 섬처럼 느껴졌는데 만주벌판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힘찬 기백을 다시 떠올리니 하루속히 통일대업을 이루어 만주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다시 끝없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확신한다.

반만년 만에 우리 민족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승천하는 지금, 다시 유라시아 대륙의 문이 열린다면 용트림하며 다시 하늘로 도약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연해주 땅을 보면 ‘고토회복’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가이드에 따르면 연해주 ‘고토회복’에 대한 우리들의 강렬한 마음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이라고 한다. 러시아인은 정치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

고 무관심하기로 유명한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중국은 역사까지 날조하며 동북공정에 혈안에 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 것일까? 오랫동안 흘러온 거친 역사와 끝없이 드넓은 땅에서 연유한 것이 아닐까?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이 땅을 넘겨받았다고 하니 시간이 오래지 않아 미안해서 그런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150년 전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한 러시아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 천년간 살았던 이 고토를 되찾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정신만이라도 고토를 회복하여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고 융성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웅혼한 기상을 되찾고 싶을 뿐이다.

발해가 중국 대륙을 놀라게 할 정도로 위대한 역사를 남겼다는 엄연한 사실, 그리고 단군- 부여- 고구려- 발해 - 고려- 조선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자랑 스런 우리 역사를 후손들에게 당당히 가르쳐야 한다. 중국의 야비한 동북공정은 우리의 철저한 역사 교육으로만 이길 수 있다.

3. 러시아 고려인 문화 탐방

러시아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우리 동포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한민족 재외동포는 170여개국 7백 20만명에 이르며, 남북한 국내동포 7천 5백만명을 포함하면 우리 민족은 약 8천 2백만명에 이른다. 독일 인구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은 곧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재외

동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구 소련권 고려인 동포 현황은 532,697명(2005년)으로 재외동포 순위로 보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구소련에 흩어져 사는데 러시아 190,671명 (35.79%) / 우즈베키스탄 200,917 (37.72%) / 카자흐스탄 103,676 (19.46%) / 키르기즈스탄 20,394 (3.83%) / 우크라이나 13,111 (2.46%) 그외 타지크스탄 (1,783), 벨라루스 (1,327), 투르크메니스탄 (420), 몰도바 (285), 아제르바이잔(63), 아르메니아(30), 그루지아 (20)이다.

러시아 연해주는 우리 동포 고려인에게 특별한 곳이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기 전 무려 20만명이나 살던 곳이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된 뒤에 다시 모여들어 지금은 고려인 집단거주지 우스리스크에는 약 3만명까지 인구가 불어났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등 극동지역 곳곳에 1천여명씩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역사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고려인들의 영광과 한의 역사를 반추해 보았다.

현실을 보니 고려인들이 연해주는 물론 러시아에서 아직도 소수민족으로 차별을 받는 듯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훗날 남과 북이 개방되어 한민족이 러시아 연해주로 뻗어갈 때 우리 동포 고려인들의 협력이 아쉽고 소중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고려인 모두 다 공동의 이익을 내는 경제 민족공동체가 하루빨리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얼마 전부터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고려인들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깊은 동포애를 바탕으로 따뜻하게 껴안는 게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저 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절벽’이란 민족적 난제 앞에 고려인과 조선인 등 우리 동포들에게 제한적인 취업비자나 동포비자 제공을 넘어서는 거주와 교육, 의료 등 모든 문호를 완전 개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대의이며, 동포애의 발로가 아닐까 싶다.

결국 왜 우리는 고려인 동포들을 포용해야 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 1)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2) 고려인 동포들에게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3) 대한민국은 국가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의 후손을 반드시 포용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4) 고려인에게도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5) 한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고려인의 귀환을 환영해야 한다.
- 6) 이미 정부는 고려인 동포들을 포용하는 정책방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 7)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를 고려인동포로 채우기 위한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러시아 역사문화관광지 탐방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호수 등)

이번 연수를 통해 러시아 전역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 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로브스크 -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1억 5천만명으로 세계 5위에 이를 정도로 큰 나라이며 국가의 주 수입원이 무한정한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 자신은 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유럽에서는 유럽으로 인정하지 않는 좀 독특한 나라이다. 러시아를 말할 때 위대한 성취의 기념비들과 끈질긴 애국심, 역사적 동질성을 유지시키는 정교회 신앙, 그리고 뿌리 깊은 자존심과 모순의 나라, 여러 민족이 사는 광활한 땅 등으로 표현된다.

자 존심이 너무 강해 세계 구미열강으로부터 세계의 문제야,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 바이킹의 후손으로 윈스턴 처칠은 “불가사의한 신비에 싸인 수수께끼 나라”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독자적 국가주의 통치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주의는 붕괴되었으나 주거 교육 의료 등 약한 수준의 기초생활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부패 구조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빈익빈부익부가 극심하다. 유럽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수기간에도 우리 연수단이 탄 관광버스를 잡아 돈을 뜯어내려

는 경찰들을 자주 보았다. 러시아에는 소매치기가 득실거리는데 이도 경찰들이 돈을 받고 봐주고 있다고 하니 부패가 아직도 많다는 반증이다.

서방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18년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부의 상당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여 최근까지도 국민으로부터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전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해 서방의 봉쇄정책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푸틴이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러시아 특유의 자존심과 국가주의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가 지금은 구미열강에 밀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있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대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느껴지는 나라이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특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유라시아 동진 개척의 역사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빼놓은 수 없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최장의 철길을 달리는 유라시아 열차. 우리는 이것을 시베리아 횡단열차라고 부른다.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를 가로지르는 기찻길은 표준시간대만 여섯 개를 지난다.

러시아는 20세기 초까지 거의 200년이상 우랄 산맥을 넘어 끝없이 유

라시아 대륙의 동으로, 동으로 팽창한 역사였다. 결국 태평양까지 다다랐고 나중에 미국에 팔았지만 한때 알래스카까지 확보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1억 5천 만명을 먹여 살리는 자원부국을 낳은 행운의 역사가 된 것이다.

우리 일행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역을 방문했다.

모스크바까지 7박 8일간의 대장정 가운데 하바로프스크까지 고작 12시가량만 횡단열차를 경험해서 아쉬웠지만 자작나무가 울창한 평원을 지나가는 차창 풍경이 시종 똑같다고 해서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제정러시아의 꿈과 포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 개화기 대한제국의 염원과 아픔이 서려 있고,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통곡의 길이기도 해서 호기심 못지않게 착잡한 심정으로 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다.

1896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제국의 대표로 참석한 민영환 특사가 귀국한 길이었고, 1907년 밀명을 받고 헤이그로 향한 이준과 이상설 고종 특사 두 분의 비장함이 어린 길이었으며, 1937년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동포들의 눈물의 역사가 쓰인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일구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구현하는 대동맥으로 상징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한 가운데 이르쿠츠크 시가 품고 있는 바이칼 호수를 방문한 것도 연수의 의미를 크게 했다.

바이칼 호수는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이기 때문이다. 고서인 ‘환단고서’에 따르면 환인의 주 무대이다. 기원전 1만년전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던 이후 우리 민족은 바이칼에서 수 천년에 걸쳐 흥안령 산맥을 따라 동남하 하여 만주에 이르고 결국 한반도로 들어왔다. 우리 대구 북구 무태에도 신석기시대 대표유적이 있는데 이런 유토피아를 찾아 나선 우리 민족의 대장정의 결과가 아닐까.

나는 바이칼 호수가 눈앞에 펼쳐지자 숨이 멎는 듯 압도당했다. 세계 8번째 큰 호수 때문인 점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바이칼 호수는 겨울철이라 전체가 모두 꽁꽁 얼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빙판이었다. 마치 생명체가 동면을 하며 잠을 고요히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태초의 신비와 순수를 간직한 바이칼 호수. 우리 조상들의 기백과 기상이 오롯이 담겨있는 듯했다.

문득 상념에 젖는다. 지금 우리 한민족은 과연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유토피아를 찾아 따뜻한 지역을 따라 동으로 남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반만년 만에 세계 속에 우뚝 서며 최고의 성가를 올리고 있다.

우리 민족의 피와 영혼 속에서 광활한 바이칼 호수의 태초의 숨결이 배인 유전자가 면면히 내려올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생명의 샘인 바이칼을 우리는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민족과 바이칼 호수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바이칼 호수 옆에서 우리 옛날 마을에서 보던 성황당 나무에 매달린 오방색 리본을 보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당과 굿, 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어 과거 한때 같은 문화권에 속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바이칼 호수에 한국관광객이 매년 5천명이 온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성지는 백두산 천지이고, 우리 민족의 시원 성지는 바이칼 호수일 것이다.

5. 대구와 북구 지역 홍보

국제화시대를 맞아 대구시와 북구가 러시아와 경제교류가 가능한 분야는 바로 의료관광과 안경산업이다.

러시아의 의료분야는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데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까워 우리 대구지역 병원들이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에 상황과 여건이 좋은 편이다.

대구시도 러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두 분야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구 발전의 동력으로서 삼으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의료관광은 메디시티 실현을 추진하는 대구시 역점 사업 중 하나이며, 우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로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타깃 국가 다변화, 의료기술 육성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러시아도 주요 타깃이다.

대구시는 올해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의료관광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인데 실제로 대구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시와 교류와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 대구 동산의료원도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시 지역의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도 대구 외국 의료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 의료관광객 수는 2013년 7,298명에서 2014년 9,871명, 2015년 1만2988명, 2016년 2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안경산업의 러시아 진출도 시작되고 있다.

안경산업은 안경테 및 부품을 비롯하여 선글라스, 고글 등 안경 류와 렌즈류 및 안광학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산업인데 전국 안경테 생산의 약 80%, 수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이다.

특히 북구청도 작년 4월에 구비 포함 국·시비 등 1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경산업을 견인할 ‘아이빌(EYE VIL)’을 3공단 내에 신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신시설과 집적화로 업체 간 정보교류와 경쟁력이 갖춰져 북구의 안경산업이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지역 여행가이드들은 현지에서 한-러간 무역 사업을 병행하는 분들이라 연수팀은 대구 안경산업과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했다.

대구지역 모 업체가 시베리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크츠크 시내에 현지 자본과 합작으로 안경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관광은 서울지역 병원들이 선점하고 있어 후발추격 도시인 대구지역은 두 배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르쿠츠크시에서는 대구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현지 주 이르쿠츠크 한인회장인 김규섭 현지 가이드는 “서울 강남구와 협력사업을 해보았는데 홍보노력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았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 대구의 의료수준이 질적으로도 높지만 가격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는 한국의 러시아 의료관광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에서 병원을 짓고 러시아 의사들에게 연수를 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하면 러시아 부자들 사이엔 한국 의료관광 붐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지 가이드들에게 향후 이메일로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다. 향후 의료관광 분야나 안경수출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구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저렴한 비용의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어

있고, 쇼핑몰이 많고 인근 동해안과 경주 안동 등 전통유적지 등 관광이 잘 연계되어 있어 우리나라 다른 도시보다 의료관광 분야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르쿠츠크시는 러시아 내 천연자원이 생산되는 기지 도시라서 부자들이 많다고 하니 대구시와 대구지역 의료관광 병원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